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 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9년 표어§

"거룩한 교회 · 민족의 구원선 되게 하소서"
(히 13:12-16, 합 3:2)

十 행동 지침十

- 1. 교회의 거룩성 회복하여 민족의 희망
- 2. 믿음의 대를 잇는 예배공동체, 선교공동체
- 3. 하나님 역사 속의 행동하는 교회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iseoulchurch.or.kr>



누가 이 타락한 도시를 살릴 것인가?

(느헤미야 11:1~12:26)

이종윤 원로목사

금세기의 두드러진 추세 중 하나는 도시화 현상이다. 그러나 느헤미야 시대의 예루살렘은 상황이 달랐다. 느헤미야는 빈약한 인구를 증가시키려 했다. 오늘 날도 대도시마다 그리스도인으로 가득 채워져야 한다.

문제는 그 성이 광대하고 거민은 희소하여 가옥을 오히려 신축하지 못했다는 것이다(느 7:4).

I. 왜 예루살렘엔 거민이 희소했나?

1. 142년 동안 성벽 없이 지냈다

방어벽이 없는 도시는 위험한 곳이다. 가족, 짐승, 곡식 등을 언제 빼앗길지 모르기 때문이다.

2. 도시병이라 불리는 노출이 용이했고 그 이유로 쉽게 파괴되었다

지도자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나?

① 지도자들로 하여금 새로 성벽을 쌓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거주하게 했다.

② 제비를 뽑아 정책적으로 배치했다 (백성의 1/10, 1절)

세계선교를 위해 우리도 이와 같은 전략이 필요하다. 전도 센터를 이처럼 세우도록 해야 한다. 도시 전략을 위해!

II. 도시 부흥 전략 분석

느헤미야 11장의 명단과 도시 이름들은 3, 7, 10장에 있는 것보다 더 지루하고 덜 흥미롭다. 그러나 이 명단은 놀라운 전략을 보여 준다.

1. 귀향민을 정착 시켰다

예루살렘 갱신을 위한 첫 번째 전략은 거류민 정착이다. 11장은 유다와 베냐민 족속들의 이름으로 채워진다. 본문에는 유다의 두 가족(4~6절)과 베냐민의 3 가족(7~9절)이 나온다.

그리고 제사장들, 레위인들, 문지기들, 성전 종들, 공무원들의 명단이 나온다(10~24절).

12장 1~26절은 스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도자들과 가족들의 명단이다. 이때 남자 장정만 3,044명이었고 아마도 어린 아이들과 부녀자를 합하면 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 거민이 되었을 것이다. 당시 유대 땅에 살던 전체 유대인 수는 약 10만 명이었으므로 1/10에 해당하는 인구가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었다.

2. 조직을 통해 백성을 분명히 조직했다

예루살렘은 정부조직을 가졌다. 그들은 아무나 아무데서 정착한 것이 아니다. 가급적이면 조상이 살던 고향에서 살도록 했다(11장).

3. 자원하여 참여한 자들을 통해 백성들의 적극적 참여가 있었다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한 자들이 있었다(2절). 제비 뽑힌 자들이 있었다(1절).

4. 종교적 이유로

제사장들, 레위인들, 종교지도자들이 살게 되었다 물론 그들이 원치 않을 경우 고향에 거하게 했다. 예루살렘은 종교 중심지이므로 종교인들이 거주하는 것은 당연했다.

III. 점차 도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1. 도시를 버리지 말자

농촌 포기가 아니라 도시 전도는 세속과 죄로 완전 점령당해 포기 상태이다. 심야전도는 효과적이다.

2. 도시 전도에 거점이 될 교회들이 있어야 한다

모두 교외로, 주택가로만 빠져나가서는 안된다. 영적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가족으로서의 공동체를 도시 근처에 만들어야 한다.

3. 성경적 공동체가 있어야 한다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해야 한다(미6:8). 지속적인 정직 · 절제 · 사랑의 실천 운동이 있어야 한다.

4. 비전이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세속 문화를 변혁시킬 비전이 있어야 한다. 낙태, 도색잡지, 마약- 이것들과 누가 대항하는가? 비전2020운동, 기독교교도소 설립 등 새로운 비전을 가져야 한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이 참으로 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심지어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가 거하는 도시를 살리자.

이 도성을 살리자. 영적 갱신을 통해!



서울강남노회 소속 서울교회가 총회장님께 드리는 탄원서

존경하는 총회장님!

27년 전 설립된 서울교회는 이전에 섬겼던 합동측 충현교회에서 담임목사 문제로 입었던 큰 상처를 기억하며 목사나 장로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18년 전 전교인 만장일치로 7년마다 이들을 재신임하는 규정을 만들어 해당자들 어느 누구하나 이의 없이 잘 지켜 왔습니다.

박노철 목사는 부임초기 상당수 성도들의 반대에도 6년 시무 후 재시무투표제도가 있으므로 더 기도하며 협력하고 그때 가서도 도저히 부족하면 반대하면 되지 않느냐는 선임장로들의 설득으로 조기에 위임투표를 통과할 수 있었고, 이후 장로들의 안식년과 재시무투표도 직접 집행하였으며, 자신도 6년 시무 후 규정대로 재시무투표를 받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서도 때가 가까워 오고 통과할 가능성이 없게 되자 갑자기 동조 세력을 모으며 위 재시무투표제도가 무효라고 거부하였고, 나아가 자신에 대한 설교표절 시비를 피하기 위해 전임 원로목사도 표절했다는 등 후임자로서는 절대해서는 안 되는 패륜적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으며, 또 있지 않은 특정장로의 재정비리 의혹까지 제기하며, 자신이 이를 파헤치려 하자 덮기 위하여 쫓아내려한다는 자극적인 이슈를 퍼뜨려 결국 어제까지 하나이던 성도들을 솔로몬 재판의 거짓 어머니처럼 하루아침에 둘로 나뉘 버려, 담임목사의 안식년 거부로부터 시작된 분쟁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박노철 목사는 자신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제기되기 이전까지 교회 내에 어떤 재정의혹이라도 있다는 내색조차 한 적이 없었고 또 지난 3년간 외쳐왔던 재정비리 의혹 중 혐의가 확인된 것도 전혀 없습니다.

또 박노철 목사는 당회 내에서 소수 지지라는 한계를 벗어나려고 당회 허락도 없이 자기들끼리 모인 자리에서 기존 장로 과반수에 해당하는 15명을 한꺼번에 선출하였고, 그 임직을 보류하라는 총회재판국의 권고와 임직을 금지하라는 국가법원의 가처분 결정까지 무시하고 몰래 임직시킨 후 본당 접거라는 목표를 위하여 세상 사람들조차 부끄러워 할 용역 강매들을 수십 명씩 동원하여 교회 현관 유리를 깨고 쳐들어 와 교회를 점령하였습니다.

심지어 이들이 경찰에 고발되자 목회자로서의 마지막 남은 신앙 양심마저 내버린 채 세상 강제철거현장에 동원되었던 용역들을 새가족 청년부원들로 속인 후 계속 거룩한 성전에 상주시키면서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만 들어오게 하는 전형적인 교주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매 주일 동원한 숫자 부풀리기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백 명에 불과하였던 숫자를 천여 명 이상으로 선전하며 교계 전체를 기망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총회장님!

저희는 제101회기 총회장님께 4차에 걸쳐 서울교회 안식년제 규정에 관한 헌법위원회의 분명한 헌법해석과 총회임원회의 행정지시까지 노골적으로 폄하하고 거부하는 박노철 목사와 이를 일방적

“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총회가
서울교회의
용역철수 탄원에도
아무런 지시나 대책도
세우지도 않으면서
재판 중인 사안과 관련하여
박노철 목사 일방만을
두둔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게 되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으로 비호하는 서울강남노회에 대하여 최고 처리회로서 헌법절차에 따른 강력하고도 단호한 조치를 호소한 바 있고, 제102회기 총회장님께도 박노철 목사가 동원한 불법용역이 교회건물에서 즉각 철수할 수 있도록 간곡히 탄원한 바 있었으며, 지난 2018년 10월 15일 제103회기 총회임원회에도 그 지정을 간원하는 호소를 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러한 호소들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황 하에서 오히려 현재 총회재판국에서도 다루어지고 있는 위 안식년제 규정과 관련하여 앞서 있었던 헌법위원회의 헌법해석 및 총회임원회의 행정지시와는 정반대의 입장이 총회장님 이름으로 대법원에 제출되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귀를 의심하며 아연실색 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총회재판국의 재판과정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되어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교단은 2018년 6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연합세미나를 개최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목사·장로 임기제, 재신임제 등이 향후 교단의 개혁과제로 논의되었고, 또 2018년 7월 개최된 『전교장로수련회』에서도 64.1%의 장로들이 이를 찬성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국가법원은, 서울교회 안식년제 규정이 지교회인 서울교회가 자치적으로 정할 수 있는 지교회의 독립성 및 종교적 자유의 본질에 관한 것으로 총회 헌법에 구속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위 규정에 따른 재시무투표를 받지 않은 박노철 목사는 더 이상 서울교회 담임목사 지위에 있지 않다는 판결을 했고, 2019년 1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도 같은 입장에서 박노철 목사의 직무집행을 즉각 정지하라는 가처분결정까지 내렸습니다.

박노철 목사 측은 위 안식년제 규정과 관련하여 같은 서울고등법원이 잘못하여 상반된 두 결론을 냈다고 주장했으나, 이전에 박노철 목사가 승소한 판결은 서면심리만을 기초로 한 단순한 가처분 사건 판단인데 비하여, 이후 박노철 목사가 패소한 판결은 박노철 목사가 승소한 위 가처분결정까지 다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리 후 내려진 정식 본안 판결이었으므로 이를 마치 동일 수준의 판결인 것

처럼 그 본질을 호도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국가법원의 판결로 교단소속 다른 목사님들의 지위에 어떤 영향이라도 줄 수 있는 것처럼 선동하고 있지만, 서울교회는 위 재시무투표 제도를 사전에 목사, 장로는 물론 모든 성도들이 합의하여 지교회의 정식규정으로 제정,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원도 이를 인정하여 준 것일 뿐 그와 같은 규정이 없는 교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앞서와 같은 국가법원의 여러 판결들이 통합고단 정체성이나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도 있으나 오히려 국가법원이 나서서 "자기들 교단헌법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노회와 총회에게 자신들이 만든 교단헌법이라도 바로 해석하고 준수하라"는 일침을 가한 것을 두고 정교분리원칙 위배라고 비판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이러한 비판이야말로 국가법원의 판결에까지 여론몰이로 부당하게 간섭하며 스스로 정교분리원칙을 깨뜨리는 부끄러운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행정부도 사법기관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사안에 관하여는 그 의견표명을 자제하고 있고 최근 문제가 되는 사법농단 사건들도 행정부가 과도하게 자신들의 입장을 법원에 반영하려는 과정에서 발단된 것이라는 점에서 현재 총회재판국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위 안식년 규정 관련 의견표명은 매우 부적절한 조치가 아닌지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구나 서울교회 안식년제 규정은 제정, 시행된 지 벌써 18년이나 경과한 제도로서 총회 행정소송의 법적 제소기간 5년도 훨씬 경과한 사건이라 소송 자체가 부적법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총회장님!

박노철 목사의 용역동원으로 8층 규모의 교회 건물 대부분이 담배냄새 찌드는 만신창이가 되고, 천여 명 이상의 성도들은 단순히 목사에 반대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용역들에 쫓겨 나와 매주 1, 2, 3층 단 한 개층의 비좁은 공간에서 주일 1, 2, 3부 예배와 찬양예배, 교회학교 각 부서별 예배와 찬양대 연습은 물론 교인전체 식사 등 정말 참고 견디기 어려운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총회 산하 수천 지교회를 지도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총회가 서울교회의 수차례에 걸친 간곡한 용역철수 탄원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는 아무런 지시나 대책 한 가지도 세우지 않으면서 어떻게 재판 중인 사안과 관련하여 박노철 목사 일방만을 두둔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게 되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부디 살피셔서 서울교회가 교단 산하의 건강한 지교회로 속히 회복될 수 있는 지혜롭고도 강력한 조치를 탄원드립니다.

2019년 3월 8일
서울교회 장로 임상헌 외 12명 일동

서울교회 파송 김낙형·오정녀 선교사가 지도하는 케냐 이마니콰이어 한국 찬양사역

4월 28일(주) 찬양예배 시 특별찬양

서울교회가 케냐로 파송한 김낙형·오정녀 선교사가 지도하는 아마니콰이어가 한국을 방문하여 찬양사역을 펼칠 예정이다.

이마니콰이어는 김낙형·오정녀 선교사가 지도하는 합창단으로 케냐 6곳에서 진행되는 220여 명의 아마니 음악학교에서 특별히 음악적 소질이 있어 선발된 50명여 명으로 전부 장학생으로 연주반과 연습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성가, 일반합창곡과 케냐 전통음악과 무용, 피아노교육, 한국무용(부채춤)의 수업으로 아주 잘 훈련 되어 각 개인의 특성을 더욱 살려 주고 복음을 바탕으로 합창을 전문으로 하는 전

문 합창학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마니콰이어는 4월 3일(수)~5월 2일(목) 체류 할 예정이며 서울교회 당회는 지난 3월 6일(수) 정기당회에서 이들이 한국에 머무는 동안 사용할 아가페타운 19박 시설이용료의 50%를 지원하기로 결의 하였다.

4월 28일 찬양예배에서 특별찬양을 하고 이날 1일 홈스테이를 진행 할 예정이다.

이들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은총과 보호하심이 깃들기를 기도하며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바란다.



2019 호산나대학교 입학식

지난 3월 5일(화) 호산나대학 제14회 입학식이 있었다. 2006년 3월, 서울교회 7층에서 대안학교 형식으로 발달장애인과 발달성장애인을 위한 방과 후 학교로 시작한 호산나 대학은 2009년 10월,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부지 13000평의 아가페타운으로 이전하였다.

서울교회는 2005년 11월에 헌당하고 이제 한숨을 돌릴 즈음 오랫동안 비전으로 가지고 있던 장애우를 위한 대학 설립과 성도들을 위한 실버타운 건립을 위해 아가페타운 부지를 매입했다. 호산나대학은 예배당 건축과 함께 서울교회 성도들의 땀과 기도와 눈물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곳이다.

이종윤 원로 목사님은 2004년 창립 13주년 기념일에 빈약한 자를 위한 아가페타운을 위한 비전을 선포하였고, 2008년에 아가페타운 부지를 매입하여 오래된 공장과 기숙사 건물을 성도들이 직접 리모델링하며 호산나 대학 건물을 건축하였다.

그런 호산나대학이 벌써 14회 입학식을 하게 되니 서울교회 성도들께 참으로 감회가 새로울 뿐이다. 후자들은 아가페타운을 두고 설왕설래 하지만 당시 서울교회 성도들의 땀과 수고를 누가 알랴! 오직 하나님만 아시나니 주님은 작은 자 한 사람을 위해 수고의 땀을 마다하지 않은 서울교회를 칭찬해 주시리라.

이 날 입학식의 설교를 하신 이종윤 원로목사님은 '다시 보라'는 제하의 설교에서 '신입생들은 호산나 대학 입학을 계기로 자기를 다시 보고, 이웃을 다시 보고, 하나님을 다시 보라'는 메시지를 전하셨다. 재학생 95명과 신입생 45명의 호산나 대학 학생들은 부디 주님 안에서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스승을 만나고, 참 좋으신 예수님을 만나므로 평생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며 사회에 나가서는 배운 바를 타인에게 베푸는 삶을 살기 바란다.

허 숙 권사(편집부)
사진 : 최형열 장로 김애리 집사



사순절의 기도

기도하게 하소서

박보경 집사(9교구)

우리의 눈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어딜 가든 굽어 살피시고
우리가 무지할 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매일 때
당신의 은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당신의 자비로 우리를 인도해주시고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곳으로
당신의 빛을 찾게 하소서
매일 밤 별들이 떠오를 때
당신은 영원한 별이십니다
이렇게 당신께 기도하게 하소서

얼마나 더 큰 믿음이 필요한지요
어둠이 우리의 삶을 뒤덮을 때
당신의 은총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소서
당신의 자비와 함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평화의 세상, 정의의 세상, 희망의 세상을 꿈꾸게 하소서

가장 가까이 있는 이의 손을 잡게 하소서
평화와 형제애의 상징으로
주님이 주신 사랑의 힘으로
우리 삶을 평화롭게 하소서
하늘에서 저희를 굽어살피시어
모든 영혼이
당신의 사랑을 만나게 하소서
이처럼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 안에서
또 다른 영혼이 그 사랑을 만나기를
기도하게 하소서
어린아이처럼
필요한 곳을 찾아
당신의 자비와 함께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께서
우리 맘속에 밝히시던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게 하소서

아 멘



새가족부 수료식

지난 주 3월 3일(주)에 정선영 성도의 새가족부 수료식이 있었다.



가브리엘 찬양대 찬양대원 모집

1부 가브리엘찬양대에서 함께 봉사할 성도를 모집한다.

최고의 주님께 최선의 찬양을 드리기 원하는 성도 누구나 성별, 연령 상관없이 지원 가능하다.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지 마시고, 2대, 3대까지 함께 찬양의 계대를 이어갈 성도들을 기다린다.



1일 나눔의 장

3월 10일 (주)

오늘 1일 나눔의 장이 열린다.

교회 회복과 구제를 위하여 리브가전대회(회장 : 남태순 권사)는 오늘 1일 나눔의 장을 연다.

예전처럼 나눔의 집을 운영하기 어려운 현실에서도 교회 회복과 빈약한 자 구제를 위하여 옷과 생필품 등 나눌 수 있는 물품들을 마련하였다.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바란다.

2019 성경암송대회

범위: 마 5-7장(산상수훈)
예선: 9월 29일(주일)
본선: 10월 12일(토)

2019년 성경암송대회 일정과 범위가 확정되었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 바란다.

1. 교회학교별 성경암송대회(예선)
 - * 일시: 9.29(주)
 - * 암송범위: 마 5-7장(산상수훈)
2. 각 부서별 성경암송대회(본선)
 - * 일시: 10.12(토) 오후 7시



- 전 성도 성경 읽기표 -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 5:39)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3월11일	월	신 29:1-31:29		대하 1-8	
3월12일	화	신 31:30-34:12		대하 9-18	
3월13일	수	수 1-4		대하 19-25	
3월14일	목	수 5-8		대하 26-33	
3월15일	금	수 9-11		대하 34-36, 스 1-2	
3월16일	토	수 12-14		스 3-10	
3월17일	주일	수 15-17		느 1-7	



교회회복을 위한 기금 기부자 명단

안미경 김영숙 김진숙 김광욱·서영희 이선희 정춘혜 김성준·김선영 송인권 윤요섭·안재희 무 명 (다음 주 계속)

* 기부금 입금 계좌 : 신한 110-481-143925 노문환 (서울교회장로회)

동 정



■ 연주회 : 15교구 신모란 집사(할렐루야, 시온 찬양대 솔리스트) 프리마돈나앙상블 3월 12(화)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 금주의 식사 : 유명종 집사 이형희 권사 가정 (장례를 은혜중에 마치고) 곤드레밥 깻잎장아찌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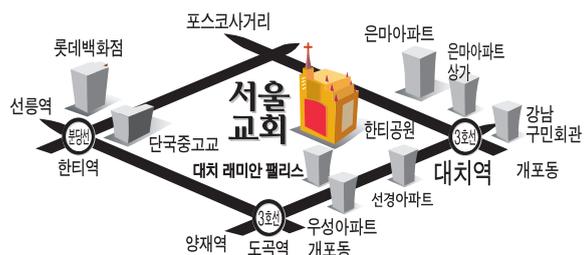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시순절 첫째 주간이 될 수 있도록
2. 우리 교회의 모든 송사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불법 세력들이 제거되고 교회가 속히 회복되도록
3.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내외 정세에 우리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시어 복음화된 통일조국 속히 이루어지도록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토)	본당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